

研究論文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김철웅*

I. 머리말	V. 결론
II. 경령전의 설치	<참고문헌>
III. 경령전의 운영	<국문요약>
IV. 경령전 의례와 그 위상	

I. 머리말

고려는 왕실 조상의 숭배를 위해 태묘 이외에 여러 제사 시설을 두었다. 즉 진전사원과 함께 경령전(景靈殿), 효사관(孝思觀), 서경의 예조묘(藝祖廟) 등의 원묘(原廟)를 두었다. 특히 태조와 직계 4대친의 진영(眞影)을 봉안한 경령전은 태조와 황고의 별묘)로 여겨졌으며, 태묘·제릉과 함께 길례 대사로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실 조상숭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경령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보면 대체로 태묘나 진전사원²⁾ 그리고 조선의 원묘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중세사 전공(kim9963@dankook.ac.kr).

1) 『高麗史』 열전33 尹紹宗, “景靈殿 太祖皇考之別廟 孝思觀太祖之眞之所在 顯毅二陵太祖皇考之墓也.”
 2) 이에 대한 연구로는 趙善美, 「高麗時代의 眞殿制度」, 『韓國肖像畫研究』(열화당, 1983); 허홍식, 「불교와 융합된 왕실의 조상숭배」, 『고려불교사연구』(일조각, 1986); 한기문, 『高麗時代 王室顯堂과 그 機能』, 『국사관논총』, 77집(1996); 한기문, 「고려시대 개경 봉은사의 창건과 태조진전」, 『한국사학보』, 33호(2008); 김철웅, 「고려시대 태묘와 원묘의 설치와 운영」, 『국사관논총』, 106집(2005)

제도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³⁾ 여기에서 밝혀진 바를 보면, 경령전이 『고려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덕종대 이후임으로 그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장소는 구정 옆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령전은 본래 7묘였으나 충렬왕 이후 5묘로 축소되었다고 한다.⁴⁾ 그리고 경령전의 역할은 뚜렷하지 않았는데, 고려시대에 원묘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정묘(正廟)인 종묘가 있었고, 사찰에서 행해지던 조상 숭배 행위가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령전은 친(親)의 예(禮)에서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이곳을 찾아 제사지내기 보다는 각자의 원찰을 통해 조상을 숭배하는 예를 다한 것도 고려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제적 모습과는 달리 경령전은 대사(大祀)에 속하여 그 위상은 매우 높다고 보았다.⁵⁾ 그리고 경령전은 몽고 침입으로 강도시대에 원당(願堂)을 모두 복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령전에 모시는 때가 있어 중시된 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원당에 의한 기일제가 중심이었다고 하였다.⁶⁾ 또한 경령전은 덕종대부터 운영되었음이 확실하며 즉위 신고, 태자의 출생, 태자의 결혼, 군사의 출정, 개경 환도 등 왕실과 국가의 중대사에 왕이 직접 참배하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경령전은 송나라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대궐 북쪽에 지었다고 하였다.⁷⁾

이러한 연구 결과, 경령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졌지만, 건립 장소나 위상 등에 대한 오해와 착오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령전의 설치, 운영, 의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령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고자 한다.

등이 있다.

- 3) 조선시대 原廟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종수, 「조선시대 魂殿과 原廟 제향악」, 『韓國學報』, 66집(1992); 池斗煥, 『朝鮮前期 儀禮研究』(서울대출판부, 1994); 鄭素英, 「조선초기 原廟의 불교적 성격과 置廢論 연구」,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홍윤식교수정년퇴임기념간행위원회, 2000); 한형주, 「조선전기 文昭殿의 성립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24집(2007).
- 4) 허홍식, 앞의 책, 일조각, 62쪽.
- 5) 정소영, 앞의 논문, 386쪽.
- 6) 한기문, 『高麗時代 王室願堂과 그 機能』, 『국사관논총』, 77집(1996), 56쪽.
- 7) 정구복, 「고려사 예지 역주(4): 경령전」, 『고려시대연구(XII)』(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25~128쪽.

II. 경령전의 설치

경령전은 고려의 원묘로 설치되었다. 즉 원묘인 경령전은 태묘 외에 따로 설치되는 이중의 묘이자 별묘였다.⁸⁾ 이렇게 태묘(종묘)와 별도로 원묘를 둔 것은 이를 통해 효도를 더욱 잘 실천한다는 의미 때문이었다. 원묘를 둔 이유에 대해 고려시대 문헌에 전하는 바가 없으므로 후대의 것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세종 15년 5월에 태조와 태종의 신위를 새로 지은 문소전에 이안하고 제사를 친히 거행한 후에 원묘에 대해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경(禮經)의 떳떳한 일이며, 죽은 이를 산 사람같이 섬기는 것은 지극한 효성이다. 그러므로 역대의 제왕이 이미 종묘를 세워서 태고의 예를 숭상하는 것은 신성히 여기는 까닭이며, 또 원묘를 설치하여 평상시와 같이 섬기는 것은 친근하게 하는 까닭이다. 내가 조종의 유업을 잇고 무궁한 큰 명을 받아서 유업을 계속하기에 오직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나, 조종을 추모하매 망극하기 그지없다. 사시마다 음식을 올려 제사를 지내는데, 극히 정결하게 하여 효도하는 생각을 펴고 있다.⁹⁾

원묘는 현 임금에 돌아가신 선대 임금을 생존한 것과 같이 섬기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천향(薦享)은 생존한 때와 같게 하여 종묘의 제사와 구별하였다.¹⁰⁾ 그리고 종묘와 달리 왕의 거처 가까이 원묘를 둔 것은 그 철의 음식물을 즉시 제사 지내고자 하기 때문이었다.¹¹⁾ 즉 원묘는 격식이 있는 종묘를 대신하여, 혹은 왕이

8) 원묘란 종묘 외에 별도로 둔 이중의 묘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 된다. 『史記』高祖本紀8, “及孝惠五年 思高祖之悲樂沛 以沛宮為高祖原廟<集解徐廣曰…謂原者 再也 先既已立廟 今又再立 故謂之原廟>”; 『漢書』元帝紀 元帝 5년 7월 庚子, “復太上皇寢廟園原廟<文穎曰 高祖已自有廟 在長安城中 惠帝更於渭北作廟 謂之原廟 爾雅曰 原者再, 再作廟也>”; 『漢書』志(22) 禮樂志(2), “至孝專時 以沛宮為原廟<師古曰 原 重也 言已有正廟 更重立也>.”

9) 『世宗實錄』15년 5월 을묘, “上 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受賀 有境內曰 報本反始 禮經之常 事亡如存 孝誠之至 故歷代帝王 既立宗廟 禮尚太古 所以神之也 又設原廟 事以平生 所以親之也 予承祖宗之貽憲 襲無疆之鴻休 繼述惟勤 追慕罔極 每於四時之事 饗薦之禮 務極精嚴 以展孝思”

10) 『世宗實錄』13년 12월 을묘, “上謂知申事安崇善曰 原廟之設 繼世之君 欲事亡如存 凡所薦享 一如生時 以別於宗廟之祭”

11) 『世宗實錄』13년 12월 신해, “上曰…宗廟則享祀有時 不可煩黷 別設原廟於近地者 欲以時物隨所得

멀리 있는 능에 행차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자주 제사지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¹²⁾ 따라서 고려의 경령전도 이러한 이유로 설치되었을 것이다. 고려의 경령전이 궁궐 내에 있었다는 사실도 “事以平生 所以親之”라는 이유와 잘 부합된다.

그러면 고려의 경령전은 언제 설치되었을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경령전이 설치된 시기는 현종대(1010~1031)라고 한다. 즉 경령전에 관한 첫 기록이 덕종 즉위년(1031)에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보면 경령전은 덕종 이전인 현종대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¹³⁾ 그런데 고려의 경령전이 송의 경령궁(景靈宮)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¹⁴⁾ 그리고 고려가 송 제도를 받아들일 때 적극적이었으며, 현종 7년에 대증상부, 9년 10월에 천희 등의 송 연호를 사용토록 한 것¹⁵⁾에서 알 수 있듯이 현종대는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현종대에 경령전이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종전의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면 경령전은 현종대 어느 시기에 건립되었던 것일까. 현종대 어느 시기에 경령전이 건립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의 시기는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경령전을 설치한 시기는 아마도 송이 경령궁을 둔 현종 3년(대상중부 5년, 1012) 이후일 것이다.¹⁶⁾ 고려의 경령전과 송의 경령궁은 명칭이 일치하고 있고, 원묘이며 진영을 봉안한 점 등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¹⁷⁾ 종전의 견해대로 현종은 송의 경령궁 제도를 받아들여 경령전을 조성

享薦也.”

- 12) 정소영, 앞의 논문, 391쪽. 효의 적극적인 실천이라는 의미로 원묘를 둔다는 생각은 여러 원묘를 설치, 운영한 송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宋大詔令集』 권143 典禮28 原廟 建鴻慶宮詔 <大中祥符七年正月丙辰>, “在昔聖王 遙追先烈 或脩原廟 或模寫辟容 所以伸繼孝之心.”
- 13) 허홍식, 앞의 책, 62쪽.
- 14) 『願齋遺藁』(25) 雜著 「本朝祖宗眞殿事實辨<丙午>」, “漢制 自諸帝各廟 在京師者外 別立原廟…宋眞宗崇道教 又因唐京有景靈宮 天下名都名山 分立宮觀 並以諸帝塑像繪容安之 而其以配于老子者 往往不一 我東高麗眞殿之設 實其遺也.” 高裕燮, 「高麗畫跡에 대하여」, 『韓國美術文化史論叢』(통문관, 1974). 송의 경령궁에 대해서는 山內弘一, 「北宋時代の神御殿と景靈宮」, 『東方學』 70집(1985)이 참고 된다.
- 15) 『高麗史』 세가 현종 7년 12월 및 9년 10월조 참조.
- 16) 『宋史』 眞宗本紀(3) 祥符 5년, “閏十月 戊寅…建景靈宮…十二月…戊辰 作景靈宮…天禧五年 秋七月…戊寅 新作景靈宮萬壽殿.”
- 17) 고려의 경령전과 송의 경령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고로 밝힌 예정이다.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령전 조성의 상한은 현종 3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경령전이 궐내에 위치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궁궐 조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현종 시기는 거란의 침략으로 궁궐이 불타고 이를 다시 건설해야 했으므로 경령전 건설 역시 궁궐 중건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종 2년에 있었던 거란의 침략으로 개경이 불타자 이를 다시 지어야 했다. 궁궐은 현종 5년 정월에 일단 완성을 보았으나,¹⁸⁾ 태묘와 사직단의 수리는 이보다는 후에 이루어졌다. 태묘는 5년 4월에 재방을 고쳐 짓고 태묘로 사용하였으며, 사직단은 5년 7월에 수리하였다.¹⁹⁾ 경령전이 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태묘 정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현종 5년에 궁궐이 완성되었을 때는 아직 건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재방을 수리하여 임시로 태묘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상 숭배 시설인 경령전을 먼저 건립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궐이 다시 중수되었던 현종 11~12년이 주목된다. 이때 궁궐을 중수하고 건물명을 다시 지었는데,²⁰⁾ 비록 경령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수와 함께 경령전을 건립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경령전은 현종 11년에 시작된 궁궐 중수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현종은 왜 새로 원묘인 경령전을 설치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건립 당시 경령전에는 누구를 봉안할 것일까. 후술하겠지만 경령전은 태조와 현 국왕의 직계 4대친을 봉안했다.²¹⁾ 따라서 건립 당시에 태조가 봉안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²²⁾ 그런데 문제는 현종의 친부인 안종의 봉안 여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종의 탄생과 즉위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현종은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왕육을 효목대왕이라고 추존하고 묘호를 안종(安宗)이라고 했다.²³⁾

18) 『高麗史節要』 현종 2년 정월 乙亥, “契丹主 入京城 焚燒大廟宮闕民屋皆盡…五年正月…宮闕成.”

19) 『高麗史節要』 현종 5년 4월, “親禱于齋坊 加上尊諡 時大廟未成 每值時祭 各於本陵 遣官行事 令修齋坊 權安神主 始以穆宗祔 赦流罪以下…十八年二月 修太廟 復安神主.” 태묘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중건된 것은 현종 18년이었으며, 사직단은 문종 6년(1052)에 다시 세워졌다.

20) 『高麗史』 세가 현종 11년 8월, “庚子 以重修大內 移御壽昌宮…十二年春正月…乙巳 改紫宸殿爲景德殿 上陽宮爲正陽宮 左右朝天門爲朝宗 柔遠門爲崇福…秋七月…癸卯 改明慶殿爲宣政 靈恩殿爲明慶 景德殿爲延英.”

21) 『高麗史』 열전(33) 尹紹宗, “景靈殿 太祖皇考之別廟.”

22) 송의 경령궁도 태조의 숭배 시설로 시작되었다. 『宋史』(109) 지(62) 禮(12) 吉禮(12) 景靈宮, “景靈宮創於大中祥符五年 聖祖臨降 爲宮以奉之.”

그런데 안종의 무덤이 여전히 사주(泗州)에 있어 현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²⁴⁾ 효심을 다할 수 없었던 현종은 결국 8년(1017) 4월에 문하평장사 최항과 중추부사 윤징고를 사주에 파견하여 안종의 관을 옮겨오게 하였고, 직접 동교에 나가 맞이하였다.²⁵⁾ 이리하여 안종의 능을 건릉(후에 무릉)이라 하였다.

그런데 현종은 이장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안종을 위해 진전사원을 건립하였다. 이듬해 6월에 현종은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를 창건하였다.²⁶⁾ 이렇게 하여 현종은 유배에 처해져 있다 비명에 간 아버지에 대해 묘호, 능, 진전사원을 모두 갖추어 역대 국왕의 예로 모셨다. 이러한 현종의 안종 추존은 성종의 아버지 대종의 사례와 유사하다.

경종의 선양으로 즉위한 성종은 얼마 후 아버지를 추존하여 선경대왕이라 하고 묘호를 대종이라 하였으며, 능을 태릉이라 하였다. 능 부근에 해안사(海安寺)가 있었다²⁷⁾고 하니 이 사찰이 대종의 진전사원이었을 것이다. 한편 성종은 13년 4월에 대종을 태묘에 합사하고 직접 체제를 지냈다. 이리하여 성종대 태묘에는 태조, 혜종, 정종, 광종, 대종, 경종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성종의 대종 부모는 예에 어긋하는 일이었다.²⁸⁾ 정종 2년 12월, 덕종을 부묘할 때 서눌·황주량 등이, “대종은 추존한 임금이니 신주를 능으로 옮겨 제사지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한 것은 대종의 부모가 예에 어긋났기 때문일 것이다. 대종의 사례가 있음에도 현종이 안종을 부묘하지 않은 것은²⁹⁾ 태묘 제도에 맞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

23) 『高麗史』 열전(3) 종실 안종 육.

24) 현종은 생일을 맞아 아버지 안종을 추념하지 못하는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高麗史』 세가 현종 3년 6월 계축, “禮官 請令中外陳賀生辰 教曰 寡人早值閔凶 永違供養 每及劬勞之日 益切追感之心 豈忍悲懷 反受慶會 今後兩京諸道進賀 一切禁之止 置祝壽道場永爲恒式.”

25) 『高麗史』 세가 현종 8년 4월.

26) 『高麗史』 세가 현종 9년 6월 戊申, “始創大慈恩玄化寺 以資考妣冥福.”

27) 『新增東國輿地勝覽』(5) 개성부 하.

28) 이 점에 대해 안정복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東史綱目』(6上) 경종 6년 11월, “<안> 성종은 王號로 추존할 뿐만 아니라 뒤에 와서는 또 올려 태묘에 합부하였다. 대종이 왕위에 있지도 않았고 또 혜종·정종·광종에게 신하 노릇을 하였는데 이제 혜종·정종·광종과 한 방에 나란히 있게 되었으니, 영혼이 아는 것이 있다면 어찌 송구하여 불안하지 않겠는가? 현종이 또한 이를 본받아 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를 추증하여 안종을 삼았으니 그 잘못은 같으나, 감히 뛰어 올려 태묘에 합부하지는 아니하고 능에서 제사지냈으니 곧 예가 아님을 조금 안 것이다.”

29) 『高麗史』 지(15) 예(3) 諸陵. 현종 말년 6월 계사일에 덕종이 태묘와 3릉에 대한 축문의 격식을

종의 부모는 위차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안중은 태조의 아들임으로 왕위와 세차를 넘어 부모해야 했다. 즉 경종, 성종 신주에 앞서 혜종, 광종, 대종과 같은 반열에 두어야 했다. 고려초기의 복잡한 혼인 관계와 왕위 계승이 낳은 이러한 혼란은 현종의 탄생과 즉위로 더욱 심해졌다. 결국 안중의 부모는 예제에도 어긋나며 위차가 혼란해지는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현종은 태묘 의례를 통해 왕실의 적통임을 확인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태조의 친자이자 현종의 아버지인 안중을 위한 별도의 제사 공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즉 경령전에는 태조와 함께 안중을 부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① 대덕(1297~1307) 말에 왕유소 등이 적자(충선왕)를 폐하려는 음모로 경릉(충렬왕)을 현혹하여 친자에 아뢰어 서흥후를 후사로 삼을 것을 청하게 하였다. 최유엄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경령전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조와 친묘의 진용(眞容)이 실로 거기에 있으므로 전하께서는 일찍이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서흥후가 왕이 되면 전하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여 (경령전에) 모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왕(고종)과 원왕(원종)을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⁰⁾
- ② 성상께서는 보위에 오르기 이전부터 부모를 시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항상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한탄하셨다. 추존의 예를 행하고 부모(附廟)의 의식을 갖추어 예법대로 다 행했지만 그래도 성상의 효심에는 부족하였다.³¹⁾

자료 ①에 따르면 경령전은 친묘로서 현 국왕의 직계 조상을 모셨다. 그것은 추

제정하였는데, 안중은 부모되지 않아 태묘 축문에서 제외되어 있다.

- 30) 『櫟翁稗說』 전집(2), “崔大寧有滄 大德末 王惟紹等 以廢嫡之謀 惑慶陵 將奏之天子 請以瑞興侯興爲嗣 公進曰 殿下獨不念景靈殿乎 太祖及親廟其眞容 實在於是 殿下嘗修其祀事矣 萬有一瑞興侯得立 千歲之後 將追王其祖廟二侯以附 則高王元王 不容不遷矣 高王元王.”
- 31)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 “聖上 豹隱之除 竭侍養之心 長有寢門之問 龍飛之後 念劬勞之恩 每積風樹之歎 以爲追尊之禮行矣 附廟之儀備矣 考彼禮典 雖曰已周 在朕孝心 有所未足.”

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봉안 원칙은 경령전 건립 당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 ②에 의하면 현종은 안중에 대해 “附(祔)廟之儀”를 갖추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안중은 태묘에 봉안되지 않았으므로 이때 ‘부묘’는 바로 원묘인 경령전에 봉안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현화사비 말미에 “송 친희 5년 신유년(현종 12년, 1021) 추7월”에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경령전의 건립과 안중의 봉안은 그 이전의 일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현종이 경령전을 세우고 태조를 봉안한 것은 태조 숭배를 통해 왕통의 정당성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³²⁾ 즉 3대왕인 정종은 원년 정월에 태조릉인 현릉에서 제례를 행했으며, 광종은 태조를 위해 봉은사를 세워 진전사원으로 삼았다. 아마도 이들은 태조 숭배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종 역시 비정상적으로 즉위하였으므로 왕통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원묘인 경령전을 설치하여 태조를 모시고, 태조의 친자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안중을 봉안하여 왕실의 적통이 현종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차(世次)가 어그러진 고려초의 왕위 계승으로 인해 태묘 봉안 문제가 혼란에 빠지자, 현종은 원묘인 경령전의 운영을 통해 왕실 조상 숭배를 재정립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경령전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정(毬庭)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구정에서 사열하였다. 대사헌 임헌이 도당에 말하기를, “이곳은 선왕께서 대조회와 행례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경령전과 매우 가깝다. 태조와 열성조의 신어가 구정 위에 있는데, 어찌 군사를 풀어 그 안에서 말을 달리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삼사좌사 염홍방이 말하기를, “현릉께서도 일찍이 이곳에서 오군을 사열하였으니, 한적하고 넓음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며 듣지 않았다.³³⁾

32) 영웅이나 조상 숭배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서양의 사례는 올라프 라더(저)/김희상(역), 『사자(死者)와 권력』(작가정신, 2004)에서 논의된 바 있다.

33) 『高麗史』 열전(39) 염홍방 ; 『高麗史節要』 신우 11년 정월, “大闕于毬庭 大司憲任獻 謂都堂曰 此地 非惟先王大朝會行禮之所 且密邇景靈殿 太祖列聖神御 在庭之上 豈可縱軍士馳馬於其間哉 三司左使廉興邦曰 玄陵 嘗閱五軍於此 取其閑曠也 不聽.”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전하는 이 기록에 따르면 경령전은 궁정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⁴⁾ 그런데 이 내용은 『高麗古都徵』에 인용된 이후 지금까지 경령전 위치 비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경령전의 위치에 대해 이와 다른 기록이 여럿 보인다.

경령전은 내전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있었으며, 특히 내제석원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³⁵⁾ 그리고 경령전은 집희전 부근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경령전 의식은 내전에서 시작된다. 이어 왕은 내전→집희전→경령전의 순으로 행차한다. 왕은 내전에서 나와 집희전에 가서 봉향의식을 행한 후 경령전으로 나아갔다.³⁶⁾ 이처럼 경령전의 봉향 의식이 집희전에서 시작된 것은 경령전과 집희전이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집희전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 집희전은 원래 자화전이었는데 인종 16년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자화전은 연영전각 북쪽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는 보문·청연각이 있었다.³⁷⁾ 이렇게 본다면 경령전이 내전 구역에 있었다는 주장은³⁸⁾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경령전은 내전 구역 중에서도 십원전과 바로 인접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 34) 궁정은 승평문 북쪽과 의부루 남쪽 사이에 있었다. 『續東文選』(21) 「遊松都錄」, “儀鳳樓南後庭.”
- 35) 『高麗史節要』 인종 4년 2월 계해, “黎明 王以火焰將逼欲出 會資謙 遣承宣金珣 請出御南宮 王步至 景靈殿 命內侍白思清 奉祖宗眞 納諸內帝釋院 智井中 乃出西華門 乘馬至延德宮.” 내제석원은 궁궐과 인접해 있었다. 『歷代高僧碑文』(2) 「합천영암사적연국사자광담비문」, “請住於內帝釋院 此寺也 境比紅樓 地連丹禁 是梵侶洗心之淨界 實人君植福之良田.”
- 36) 『高麗史』 지(15) 예(3) 경령전, 「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
- 37) 『高麗圖經』 卷6 宮殿2 延英殿閣, “延英殿閣 在長齡之北…又其北曰慈和 亦爲燕集之處 前建三閣 曰寶文 以奉累聖所錫詔書 西曰清燕 以藏諸史子集 嘗得其燕記文曰…故於大內之側 延英書殿之北 慈和之南 別創寶文清燕二閣.”
- 38)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신서원, 2002), 254쪽. 경령전이 내전 구역에 있었음은 대각국사 의천에 관한 다음의 기록에 잘 드러나 있다. 『大覺國師外集』(12), 「大華嚴靈通寺 贈諡大覺國師 碑銘」, “乙巳五月十四日 徵景德國師 於內殿削髮 上再拜之 許隨師 出居靈通寺”; 『高麗史』 문종 19년 5월 癸酉, “御景靈殿 召王師闡圓 祝子煦髮爲僧.” 두 자료는 같은 사실을 두고 ‘내전’과 ‘경령전’으로 달리 전하고 있다. 경령전이 내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덕국사가 곧 난원임은 『高麗墓誌銘集成』 「九龍山福興寺故王師都僧統贈諡景德國師墓誌并序」, “國師諱闡圓俗姓金氏”에서 확인된다. 한편, 최근 조사에 의하면 경령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開城高麗宮城 시굴조사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248~249쪽 및 275쪽 참조. 궁궐 북쪽 내전 구역에 자리 잡은 것이나 동당이실(同堂異室), 즉 건물 한 동과 그 안에 5실을 갖춘 주춧돌의 구조로 보아 경령전이 확실해 보인다.

③ 선화 원년 기묘<예종(즉위) 15년>에 입공사 정극영, 이지미 등이 가지고 온 불아(佛牙)는 지금 내전에 봉안한 것이 그것이다.…예종이 크게 기뻐하여 그것을 십원전(十員殿) 좌측 작은 전각에 봉안하고, 그 문을 항상 자물쇠로 채워두고 밖에는 향등을 달고 매양 친행하는 날에는 전각의 문을 열고 경배하였다. 임진년(고종 19년, 1232)에 천도할 때에 내관이 총망 중에 불아를 잇고 챙기지 못하였다. 병신년(고종 23년, 1236) 4월에 왕이 원당인 신희사에 행차하였을 때 승려 온광이 불아에 치경하기를 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은 내신을 시켜 궁중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김승노의 아뢰는 바대로 임진년에서 지금 병신년까지 5년 동안의 어불당(御佛堂)과 경령전의 수직자(守直者)들을 잡아 가두고 심문하였으나 분명치 않아 결말이 나지 못하였다. 3일째 되던 날 밤중에 서룡의 집 담안에 무엇을 던지는 소리가 나매, 불을 켜서 조사해보니 곧 불아함이었다.…다시 십원전 중정(中庭)에 불아전을 지어 봉안하고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³⁹⁾

자료 ③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아 분실의 책임을 어불당(십원전)과 경령전의 수직자 모두에게 물을 것은 이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령전은 내전 구역, 특히 십원전과 인접해 있었으며, 따라서 경령전이 구정과 가깝다고 한 표현은 사실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임헌은 왜 경령전이 구정 위에 있다고 했을까. 아마도 임헌의 표현은 흥건적의 침략으로 궁궐이 대부분 파괴된 당시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 11년에 있었던 흥건적의 침입으로 폐허로 변한 궁궐은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다.⁴⁰⁾ 그렇지만 흥건적의 침입에 불구하고 내전 북쪽에 자리 잡은 경령전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공민왕 11년 10월 갑오일에 서울에 남아 있던 재추들이 흥두적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하여 태묘의 신주들과 선왕(先王)의 진영을 옮길 것을 청하였다.⁴¹⁾

39) 『三國遺事』 탐상 前後所將舍利.

40) 『高麗史』 세가 공민왕 11년 3월, “時京城宮闕無遺 閭巷爲墟 白骨成丘”; 『高麗史節要』 공민왕 15년 12월, “稿曰 國學火于辛丑 王方務息民 至於宮禁 尙未營葺.”

41) 『高麗史』 세가 공민왕 11년 10월 갑오, “留都宰樞 以紅賊聲息 請移太廟神主及先王眞.”

- ⑤ 쓸쓸한 작은 사원이 송악을 등지고 있는데
다시 오니 귀곡은 아직도 긴장한 얼굴이네.
만금대 위에는 솔바람이 차갑고
땅을 쓸고 앉으려는데 진귀한 음식을 늘어놓네.
경령원묘가 높다랗게 솟아
그 자리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네.⁴²⁾

자료 ④에서 재추들이 말한 ‘선왕의 진영’은 경령전에 모셔져 있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선왕의 진영은 진전사원에도 있었지만, 진전사원의 진영은 사찰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료인 재추들이 안전에 책임을 다해야 할 선왕의 진영은 바로 경령전에 봉안된 초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료 ⑤는 목은 이색(1328~1396)이 안중원(1324~1394), 한수(1333~1384)와 함께 귀곡대선사(각운)를 방문하고 지은 시인데, 경령전을 송악산[松巒]에서 가까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귀곡의 생몰 연대와 안중원, 한수의 관력으로 보아 이 시는 우왕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⁴³⁾ 이러한 사실로 보아 흥건적의 침략으로 다른 전각들이 소실되었음에 불구하고 경령전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⁴⁾ 따라서 고려 말까지 경령전은 송악산 남쪽에 자리 잡은 내전 구역에 있었으며, 내제석원이나 십원전에 인접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왜 임헌은 경령전이 “구정 위에 있다[在庭之上]”고 말한 것일까. 이는 흥건적의 침략으로 개경이 함락되면서 궁궐 대부분이 소실된 상황 때문일 것이다. 즉 임헌의 비판에 염흥방은 구정이 “한적하고 광활한 곳”이라 하였는데, 이 말은 피폐한 궁궐의 당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공민왕 12년 4월에

42) 『牧隱詩藁』(26) 「同安政堂韓簽書 訪藥院龜谷大禪師 歸途謁慈恩祐世君 至十字街 分馬而歸」, “寥寥 芮院負松巒 龜谷重來猶壯顏 萬金臺上松風寒 掃地欲坐羅珍浪 景靈原廟高巘岼 如在席下心不安 却掃方丈兩脚盤.”

43) 鄭樞(1333~1382)의 『圓齋稿』에 詩 「悼龜谷覺雲」이 실려 있다. 따라서 귀곡은 우왕 8년(1382) 이전에 입적하였다.

44) 우왕 11년 3월에 강인유가 송악에서 제사하고 돌아오는데 신우가 상춘정에서 만나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한다. 흥건적 침입 당시 송악산에 가까운 내전 북쪽 구역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춘정은 이자겸의 난 때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고려사』 열전(40) 이자겸, “是日 宮禁 焚蕩 惟山呼賞春賞花三亭及內帝釋院廊廡數十間僅存”; 『破閑集』(하), “大內…山呼亭.”

구정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비록 궁궐이 소실되었지만 구정은 의례 거행의 장소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임헌의 표현은 구정과 경령전 사이에 전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흥건적 침입으로 궁궐을 불타 버렸지만, 송악산과 가까운 내전 북쪽에 자리 잡은 경령전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구정과 경령전 사이에 전각들이 사라지고 황량하게 남아 있게 되자 임헌은 경령전이 “구정 위에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요컨대 경령전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왕 때 임헌의 주장에 따라 경령전이 “구정 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대표적인 문헌은 『고려고도징』이었다. 그러나 문집을 비롯한 다른 문헌을 참고해 보면 경령전은 내전 구역, 그 중에서도 내제석원에 인접하여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장 가까이에는 십원전이 있었다.

III. 경령전의 운영

경령전에는 위속군으로 장교 1명이, 그리고 경령전 담장[屏障]에 장상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⁴⁵⁾ 이것은 경령전이 내전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담장이 둘러진 독립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즉 경령전은 태조와 왕실 조상을 모신 제사 공간이었기 때문에 담장으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태조 황고의 별묘인⁴⁶⁾ 경령전은 5실로 구성되어 있었다.⁴⁷⁾ 즉 경령전에는 태조와 4대친이 모셔져 있었다. 4대친은 현 국왕의 직계혈통인 부, 조 증조, 고조 등이

45) 『高麗史』 지(37) 병3 위속군.

46) 『高麗史』 열전(33) 尹紹宗, “景靈殿 太祖皇考之別廟”

47) 『高麗史節要』 명종 원년 10월, “宮闕災…庾應圭 詣景靈殿 抱五室祖眞以出”; 『高麗史』 세가 충렬왕 1년 12월 丁未, “遣帶方公澂 率衣冠子弟十人如元爲禿魯花 賜以景靈殿五室 白銀祭器”; 『高麗史』 지(15) 예(3) 景靈殿 「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 “至景靈殿 入就東階下…詣太祖前再拜…次詣二室入戶再拜 上香獻酌如上儀 出詣第三四五室拜禮.” 경령전에는 국왕의 진영과 함께 왕비의 초상도 함께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 14년 1월 병인, “命安崇善考古營建原廟之制以聞 崇善啓…今朝廷 立奉先殿於闕北 合祭先代帝后 高麗 亦於宮北 作景靈殿 合祭先代王妃 唯本朝 文昭廣孝兩殿 各立別處 有違古制及時王之制 乞倣上項儀制 就景福宮北 相地之宜 新構五楹合祀 從之.” 왕비 진영의 봉안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 된다.

- ⑥ 고종 2년 8월 기유, 강종의 신어(神御)를 경령전에 봉안하였다. 왕이 의봉문 밖에 나가서 신위를 맞아들였다. …서울 사람으로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은, “…비록 나라를 다스린 지는 오래지 않았으나 능히 왕실의 대를 이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사친지전(四親之殿)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천명이다”라고 하였다.⁴⁸⁾
- ⑦ 대덕(1297~1307) 말에 왕유소 등이 적자(충선왕)를 폐하려는 음모로 경릉(충렬왕)을 현혹하여 천자에 아뢰어 서흥후를 후사로 삼을 것을 청하게 하였다. 최유엄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경령전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조와 친묘의 진용(眞容)이 실로 거기에 있으므로 전하께서는 일찍이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서흥후가 왕이 되면 전하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여 (경령전에) 모실 것입니다. 그러면 고왕(고종)과 원왕(원종)을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왕과 원왕은 신이 몸소 섬겼는데, 이제 늙어 차마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⁴⁹⁾

자료 ⑥·⑦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령전은 태조와 함께 현 국왕의 직계 4대친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실례를 보면, 충렬왕 2년(1276) 6월, 경령전에 있던 인종의 초상화를 영통사에 옮기고 원종의 초상화를 경령전에 옮겨 두었다고 하니 충렬왕의 직계 4대친인 명종·강종·고종·원종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선왕 2년(1310) 11월에 충렬왕의 진영을 경령전에 안치하고 명종의 초상을 영통사에 옮겼다고 하니 이때의 경령전에는 강종·고종·원종·충렬왕이 봉안되었음을 말해준다.⁵⁰⁾ 이처럼 경령전은 태조와 함께 현 국왕의 직계 4대친을 모셔 모두 5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경령전의 운영이 왕위 계승을 기준으로 배치된 태묘

48) 『高麗史』 세가 고종 2년 8월 기유, “奉安康宗神御于景靈殿 王出儀鳳門外拜迎…都人瞻望者皆曰…雖享國日淺 能傳聖嗣 遣弓之後 入安四親之殿 眞天命也.”

49) 『櫟翁稗說』 전집(2), “崔大寧有滄 大德末 王惟紹等 以廢廟之謀 惑慶陵 將奏之天子 請以瑞興侯瑍爲嗣 公進曰 殿下獨不念景靈殿乎 太祖及親廟其眞容 實在於是 殿下嘗修其祀事矣 萬有一瑞興侯得立 千歲之後 將追王其祖禰二侯以附 則高王元王 不容不遷矣 高王元王 臣皆身及事之 今老矣不忍負.”

50) 『高麗史』 세가 충렬왕 2년 6월 병술; 세가 충선왕 2년 11월 임인.

와 달랐음을 말해준다. 경령전에는 태조 진영을 제1실로 하여 직계 조상을 제2실에서 5실까지 봉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령전 의례에 의하면, 국왕은 경령전에 이르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서향 재배하고 전(殿)에 올라 태조실에 나아가서 (태조실)문(戶) 밖에서 또 재배한다. 이것이 끝나면 2실 문(戶)으로 해서 태조 앞에 나아가 재배한다. 태조실 의식을 마친 후 그 다음으로 제2실로 들어가 재배하고 제3, 4, 5실로 가서도 향을 올리고 작헌한다.⁵¹⁾ 경령전에 이르러 제일 먼저 ‘서향 재배’한다거나 2실로 해서 태조실로 출입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태조실과 2실은 서로 붙어 있으며, 2실 다음에 3·4·5실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즉 경령전 5실은 제일 좌측을 태조실로 하고 우측으로 2·3·4·5실의 구조인 것이다.

한편 경령전은 본래 7묘에서 5묘로 축소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명종 1년에는 5실이었음이 확실하고, 고종⁵²⁾의 진영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숙종의 진영을 옮겼음으로 숙종·예종·인종·명종·강종 등 직계 5대왕과 불천의 태조와 현종을 합해 7묘가 아니었던가 하였다. 그러다가 충렬왕 2년에 명종·강종·고종·원종과 태조의 5묘로 축소시켰다고 한다.⁵³⁾ 그러나 다음 기록을 보면 경령전이 7묘제로 운영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의문이 간다.

원종 2년에 고종의 진영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숙종의 진영을 옮겼다고 하였음으로, 이 시기 경령전에는 예종·인종·명종·강종·고종 등이 봉안되었을 것이다. 즉 태조를 포함하여 6실이 되며, 만약 현종을 불천지주로 상정한다면 7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보면 원종 2년의 기록을 근거로 경령전의 구성을 7묘로 볼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 ⑧ 원종 2년 7월 신유에 고종의 진영을 경령전에 새로 봉안하고 숙종의 진영을 안화사로 옮겼다.

51) 『高麗史』 지(15) 예(3) 경령전, “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王點香三拜訖 至景靈殿 入就東階下 西向再拜 上殿詣太祖室 戶外再拜訖 舍人喝 從官再拜 王退從二室戶入詣太祖前再拜…次詣二室入戶再拜 上香獻酌 如上儀 出詣第三四五室拜禮獻爵上香同上.”

52) 허흥식, 앞의 책, 62쪽에는 ‘원종’이라고 하였으나, 다음 사료로 보아 ‘고종’의 오기가 확실함으로 수정하였다. 『高麗史』 세가 원종 2년 7월 신유, “奉安高宗眞于景靈殿 移肅宗眞于安和寺.”

53) 허흥식, 위의 책, 62쪽.

- ⑨ 원종 6년(1265) 4월 계묘일에 유사에 명하기를, 경령전에 모신 인종, 명종 두 왕의 진용(眞容)이 차례를 잃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비로소 순서대로 모시고 제향하게 하였다.⁵⁴⁾
- ⑩ 충렬왕 2년 6월 병술일에 경령전에 있던 인종의 진영을 영통사로 옮기고 원종의 진영을 경령전에 두었다.

원종 2년의 기사(⑧)에 따르면 고종 때의 경령전에는 직계로 하여 숙종·예종·인종·명종·강종, 그리고 원종 2년에는 예종·인종·명종·강종·고종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태조와 합하여 6실이 되어 5실제와 어긋난다. 아마도 고종 때는 숙종·예종·인종·강종이 봉안되어 있었고, 명종은 제외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 원종 6년의 기사(⑨)라고 생각된다. 즉 인종과 명종이 “차례를 잃은[失次]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 표현은 예종·인종·명종·강종·고종의 순서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차례를 잃었다[失次]’는 표현은 인종 다음에 명종이 순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명종은 무신정변에 의해 의종을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최충헌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리하여 죽어서도 왕으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즉, 신종이 명종의 장례를 왕례(王禮)대로 치르고자 하였으나 최충헌이 안 된다고 고집하여 등급을 내리어 왕비 경순왕후의 장례 의식에 준하여 집행하고 간혹 인종의 장례 의식도 적용하였다.⁵⁵⁾ 그리고 고종 2년 10월에 존호를 올렸는데, 그 대상은 태조·혜종·현종·선종·숙종·예종·인종·신종·강종이었다.⁵⁶⁾ 이처럼 명종은 최씨정권에 의해 역대 국왕으로서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결국 고종대의 경령전에는 숙종·예종·인종·강종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명종이 제외됨으로서 직계 4대친 봉안이라는 원칙이 어긋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종 45년에 최씨정권이 몰락하여 명종을 추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자 명종을 추가 봉안하여 5실과 별도로 모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종은 ‘차례를 잃었다[失次]’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명종의 봉안은 5실로 운영하던 경

54) 『高麗史』 세가 원종 6년 癸卯, “勅有司 景靈殿仁明二聖眞容 失次已久 始令順祀”

55) 『高麗史』 지(18) 예(6) 흥례 국홀 신종 5년 11월.

56) 『高麗史』 세가 고종 2년 10월 을미.

령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원종 6년에 ‘실차’를 언급한 것은 6실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종이 즉자 충렬왕은 경령전에서 인종을 옮기고 원종을 봉안했다(⑩). 따라서 원종대의 경령전에는 직계인 인종·명종·강종·고종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숙종의 진영은 이미 원종 2년에 옮겨졌으므로 이후 어느 시기인가 예종의 진영이 체천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예종의 진영은 원종 6년에 ‘실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옮겨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종 6년 이후, 경령전에는 인종·명종·강종·고종 등 직계 4대친이 ‘순사(順祀)’되었다. 이는 최씨정권기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봉안의 혼란을 바로 잡고 원래대로 경령전을 5실로 운영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충렬왕이 인종의 진영을 영통사로 옮기고 원종의 진영을 경령전에 둔 것에서 확인된다(⑩). 즉 충렬왕 2년에 경령전은 태조, 그리고 충렬왕의 직계 4대인 명종·강종·고종·원종 등 5실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4대친은 어떤 절차로 봉안될 것일까. 먼저 사후의 장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종 24년 2월 정묘일…보화전에서 흥하였다. 건시전으로 빈전을 옮겼다…3월 갑신일에 인종을 장릉에 장사하였다…의종 2년 2월 정사일에 영통사에서 인종의 대상재를 지냈다…3월 초하루 기미일에 왕이 영통사로 가서 인종의 진전에 배알하였다…갑자일에 인종의 신어를 경령전에 봉안하였다.57)
- 원종 15년 6월…계해일에 왕이 제상궁에서 죽었다…9월 임오일에 왕이 원종의 빈전으로 가서 비로소 상복으로 참취마질을 입고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곡하였다. 을유일에 소릉에 장사 지내고 상복을 벗었다…2년 6월 병술일에 경령전에 있던 인종의 초상을 영통사로 옮기고 원종의 초상을 경령전에 두었다…7월 을미일에 원종의 신주를 태묘로 옮겨 부제하였다.58)

임금이 흥하면 빈전을 설치하고 제사를 올리며, 매장한 후 혼전을 설치했다. 혼전에는 진영과 신주가 함께 봉안했다가59) 진영은 경령전으로, 신주는 태묘로 옮겨 봉안

57) 『高麗史』 세가 인종 24년~의종 2년.

58) 『高麗史』 세가 원종 15년~충렬왕 2년.

59) 정구복, 앞의 책, 268쪽. 한편 혼전에 신주가 모셔져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흥식, 앞의 책, 63쪽.

했다. 혼전에 진영과 신주가 함께 봉안된 사실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 ⑪ 충렬왕 34년 7월 기사일에 왕이 신호사에서 죽었다. 이날 밤에 숙비의 집을 빈전으로 삼았다. …10월…갑오일에 대행왕의 수용(睟容)이 원나라로부터 도착하자 백관을 거느리고 교외에 나가서 맞이하여 빈전에 안치하였다. …정유일에 충렬왕을 경릉에 장사지냈다. …왕이 서보통사에서 석복도량을 행했으며 (충렬왕의) 수용을 혼전에 모시고 영진전(靈眞殿)이라고 불렀다. …2년 7월…무자일에 상승왕(上昇王)의 수용을 명인전에 안치하였다. …2년 11월…임인일에 충렬왕의 진영을 경령전에 봉안하고 명종의 진영을 영통사로 옮겼다.⁶⁰⁾
- ⑫ 충렬왕 34년 7월 기사일에 신호사에서 죽었는데 그날 밤에 숙비 김씨 집에 빈전을 두었다. …10월 정유일에 경릉에 장사지냈다. …장사를 마친 후 백관들을 인솔하고 마지막 곡을 한 후 혼여를 모시고 돌아와 영진전에 모셨다. (충선왕) 2년 9월 정축일에 침원(태묘)⁶¹⁾에 합사하였다. 그때 섭태위대녕군 최유엄은 하루 전에 영진전으로 가서 재계하고 이날 아침에 고사유제(告事由祭)를 지냈다. 섭사도 정승 유청신과 전의판사 이지저는 여러 제관들과 함께 축판(祝板)을 받아 가지고 바로 침원으로 가고 백관들은 의장을 갖추고 영진전 문 밖에 모여 열을 지어 서 있었다. 목주를 만들어 노(輅)에 모셨다. …당상에서 집례관이 정실(正室)로 인도하여 들어가 먼저 태조에게 보이고 다음에 혜종, 현종 두 조상에게, 그 다음에는 인종, 명종 두 조상에게 보였다. 일을 마치자 신주를 자리에 모셨다.⁶²⁾

혼전에 신주가 모셔져 있었음은 선종 때의 사례에서 보인다.⁶³⁾ 그러나 신주를

60) 『高麗史』 세가 충렬왕 34년 7월~충선왕 2년 11월.

61) 침원이 태묘(종묘)임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高麗史』 지(31) 백관(2) 寢園署, “掌守衛宗廟…忠烈王三十四年 忠宣改爲寢園署”; 諸陵, “忠肅王…十七年六月丁未 祔忠宣王于寢園 遷仁王主 權安康王主于東夾室.”

62) 『高麗史』 지(18) 예(6) 흥례 국휼, “忠烈王…三十四年五月 王不豫 七月己巳 薨於神孝寺 是夜殯于淑妃金氏第…十月丁酉 葬于慶陵…葬訖率百官大臨 侍魂輿而返安於靈眞殿 二年九月 丁丑 祔于寢園 攝太尉大寧君崔有滄 前一日 詣靈眞殿齋宿 其日早行告事由祭 攝司徒政丞柳清臣典儀判事李之氏 與諸享官 受祝版徑詣寢園 百官具儀衛會靈眞殿門外敘立 奉木主出安于輅…堂上執禮官 引入正室 先見太祖 次見惠顯二祖 次見仁明二祖 訖奉安于位.”

63) 『高麗史』 지(18) 예(6) 흥례 國恤, “宣宗即位…九年九月壬午 王太后李氏薨于西京歸葬戴陵…十年

모신 것은 소상 이후였다. 이는 곧 소상 이전에는 혼전에 신주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혼전에서 소상제를 지내고 신주를 봉안한 것은 진(晉)의 제도였는데, 소상을 지내기 이전에는 혼전에 영정이 모셔져 있었을 것이다. 명종 때에 있었던 태후 장례의 경우를 보면 혼전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음이 확인된다.⁶⁴⁾ 즉 장례 후 혼전에 영정을 모시다가 소상제를 지낸 후 영정과 함께 신주를 더 봉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이 ⑪·⑫의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충렬왕의 장례에 대한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즉 자료 ⑪은 충렬왕의 진영이 경령전에 봉안되는 상황을, 자료 ⑫는 충렬왕의 신주가 태묘에 안치되는 것을 전해준다.⁶⁵⁾ 이처럼 충렬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혼전에는 영정과 신주가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

요컨대 선대 국왕의 장례와 경령전 봉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왕의 사망-빈전 설차-능 안치-혼전 설차-경령전 봉안-태묘 합사 순이었다. 여기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국왕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루고 먼저 진영을, 후에 신주를 혼전에 봉안하였으며, 대상이 지난 후에는 진영을 경령전에, 후에 신주를 태묘에 안치하였다. 이처럼 경령전의 진영 봉안은 태묘 합사보다도 먼저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경령전이 진전사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사망 후 진영을 혼전에 봉안하였다가 대상(大祥)이 지난 후 경령전에 진영을 봉안하게 되고 4대친이 지나면 영전은 진전사원에 안치된다. 이처럼 선대 국왕의 진영 봉안은 경령전-진전사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천묘된 신주는 능(陵)으로 옮겨짐으로⁶⁶⁾ 태묘 운용은 능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고려 왕실의 조상 숭배는 태묘·능, 경령전·진전사원의 체계로 운용되었던 것이다.⁶⁷⁾

九月丁丑 王詣仁睿太后返魂殿行小祥祭 從晉制 奉安神主於本殿”

64) 『高麗史節要』 명종 14년 5월, “金遣大府監完顏 來祭太后…至祭日問曰 太后畫像 坐耶立耶 對曰坐曰諸侯王母坐 而天子使拜 可乎 必藏影幀 乃入行事 王以問兩府僉曰不可 乃遣人 陳諭再三 從之 登堂再拜奠酒”

65)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렬왕 34년 7월, 충렬왕 신희사에서 사망→같은 날, 빈전 설차→10월 갑오, 빈전에 진영 안치→10월 정유, 경릉에 매장→진영과 魂輿(신주)를 영진전(혼전)에 봉안→충선왕 2년 7월, 진영을 명인전에 안치→9월, 신주를 태묘에 합사→11월, 진영을 경령전에 봉안. 그런데 경령전 봉안 후 태묘에 신주를 봉안하던 대부분의 사례와 달리 충선왕은 충렬왕의 신주를 태묘에 합사한 이후 진영을 경령전에 봉안하고 있다.

66) 『高麗史』 지(15) 예(3) 諸陵, “熙宗二年二月 祔神宗于太廟 本朝廟制九室 而有新祔之主 則奉遷主安於本陵”

IV. 경령전 의례와 그 위상

경령전은 현 국왕의 직계 조상을 모신 곳임으로 오히려 태묘보다 더 중하게 취급되었다. 따라서 경령전에는 여러 의례가 행해졌다. 경령전에서 행해진 의례를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즉위 의례

경령전이 매우 중시되었던 사실은 즉위 시에 잘 드러난다. 새로 즉위한 왕은 태묘보다 먼저 경령전에 고한 후 즉위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현종 22년(1031) 6월 병신일에 현종을 선릉에 장사지냈다. 무술일에 왕이 상복을 벗었다. 덕종이 경령전에 배알하여 즉위를 고하고 사면령을 내렸다.⁶⁸⁾
- 예종 17년 4월 병신일에 예종이 죽었다. 정유일에 인종이 경령전에 가서 왕위에 오를 것을 고하고 신하를 시켜 태묘와 9릉에 고하게 하였다. 갑인일에 유릉에 장사지냈다.⁶⁹⁾
- 충렬왕 34년 7월 기사일에 흥하였다. 계축일에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수녕궁에 행차하여 즉위 의례를 거행했다. 갑인일에 왕은 자포를 입고 경령전으로 가서 왕위를 계승할 것을 말하고 그 길로 수령궁으로 가서 즉위하였다.⁷⁰⁾

이처럼 경령전은 국왕이 처음으로 즉위를 고하는 곳이었다. 이에 비해 태묘에 즉위를 먼저 고한 사례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태묘 주고 의식⁷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즉위 사실을 태묘에도 고했다고 생각된다. 그런

67) 이에 대해서는 김철웅, 앞의 논문 참조.

68) 『高麗史節要』 현종 22년 6월 병신.

69) 『高麗史』 세가 인종 즉위년 4월, “丙申 睿宗薨…卽位于重光殿…丁酉 王詣景靈殿告卽位 遣使告于太廟九陵.”

70) 『高麗史』 세가 충선왕 즉위년 7월, “己巳 忠烈王薨…癸丑 王幸壽寧宮率百官隸卽位儀…甲寅 王服紫袍設灌頂道場于康安殿詣景靈殿告嗣位 遂乘輿至壽寧宮卽位.”

71) 『高麗史』 세가 지(15) 예3 태묘 「朔望薦新祈禱及奏告儀」.

데 인종의 사례에서 보듯 경령전에는 왕이 직접 즉위를 고하지만 태묘에는 신하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경령전이 내전에 있었던 것에 비해 태묘는 성 밖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즉위 의례에 있어 국왕의 경령전 참배는 태묘 보다 먼저 행해졌던 것이다. 이처럼 즉위 의례가 경령전에서 먼저 행해진 것은 국왕의 직계 4대친이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전왕의 직계 혈통임을 강조하여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왕권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2. 왕실과 국가 대·소사(大小事)에 대한 고유(告由)

경령전은 왕조를 개창한 태조가 모셔진 곳이고, 현 국왕을 있게 한 직계 조상이 모셔진 곳임으로 국왕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국왕은 나라와 왕실의 중요 행사를 경령전에 고하였다. 즉 문종은 태자가 장가를 든 사실을 경령전에 고하였으며, 왕사 난원을 불러 경령전에서 왕자 후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게 하였다.⁷²⁾ 그리고 왕릉의 수리, 사신을 위한 연회 등을 고했으며, 불교 행사인 경행(經行)을 고하기도 했다.⁷³⁾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경령전에 고했음으로 이와 관련한 의식을 국가 의례로 규정하였다.

『고려사』 예지에서 경령전에 관한 의례들을 살펴보면, 장수를 전선으로 파견하는 의식,⁷⁴⁾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⁷⁵⁾ 왕의 만이들을 낳았을 때 축하하는 의식,⁷⁶⁾ 왕태자를 책봉하는 의식,⁷⁷⁾ 왕태자의 칭호와 부(府)를 세우는 예식,⁷⁸⁾ 왕태자의 관례를 거행하는 의식⁷⁹⁾ 등 확인된다. 이렇게 왕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경령전

72) 『高麗史』 세가 문종 18년 11월 기묘 및 19년 5월 계유.

73) 『東國李相國前集』(40) 「簡陵修理次大廟景靈殿告事由祝」, 「憲陵修理同前祭祝」, 「壽陵修理次同前祭祝」, 「景陵修理次大廟及景靈殿告事祝」, 「客使辭退宴景靈殿告事祝」, 「經行日景靈殿告事祝」.

74) 『高麗史』 지(18) 禮(6) 軍禮 「遣將出征儀」, “遣將出征 宜大社告太廟 竝有司行事如奏告之儀 出鉞還鉞王皆親告景靈殿”; 『高麗史』 지(18) 禮(6) 軍禮 「師還儀」, “睿宗…三年…至四月己丑權延寵凱還…權等詣景靈殿復命還鉞.”

75) 『高麗史』 지(19) 禮(7) 嘉禮 「冊王妃儀」, “告大廟別廟景靈殿並有司行事 如常告之儀.”

76) 『高麗史』 지(19) 禮(7) 嘉禮 「元子誕生賀儀」, “告景靈殿 王受賀訖齋於別殿 至第七日五鼓後 王服靴袍 詣景靈殿 如歲日饗告之儀.”

77) 『高麗史』 지(20) 禮(8) 嘉禮 「冊王太子儀」, “告太廟景靈殿諸陵祠 竝有司行事 如常告之儀.”

78) 『高麗史』 지(20) 禮(8) 嘉禮 「王太子稱名立府儀」, “奏告 其日五鼓後 王躬詣景靈殿 享告如儀 太廟及別廟神祠遣使奏告.”

에 고해짐으로 해서 국왕이나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 경령전은 태묘보다 숭배의 정도가 더 강했다. 이것은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왕실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령전 의례가 더욱 빈번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표 1> 경령전 관련 의례 대조표

의례	구분	의례 대상						전거
		大社	太廟	別廟	景靈殿	諸陵	神祠	
遣將出征儀	군례	宜祭	告祀		告祭			『고려사』 지(18) 예(6)
師還儀	군례				復命			『고려사』 지(18) 예(6)
元子誕生賀儀	가례				告祭			『고려사』 지(19) 예(7)
冊王妃儀	가례		告由	告由	告由			『고려사』 지(19) 예(7)
王太子稱名立府儀	가례		奏告 (攝事)	奏告 (攝事)	告由 (親祭)		奏告 (攝事)	『고려사』 지(20) 예(8)
王太子加元服儀	가례		告由	告由	告由			『고려사』 지(20) 예(8)
冊王太子儀	가례		告由		告由	告由	告由	『고려사』 지(20) 예(8)
王太子納妃儀	가례		告由					『고려사』 지(20) 예(8)

경령전 제례의 절차는 태묘의 것을 따랐다.⁸⁰⁾ 경령전 섭사의 경우 태묘와 마찬가지로 재상이 행하였다.⁸¹⁾ 의례 절차를 보면 경령전은 태묘와 같은 위상을 가졌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례에 있어 그 위상이 높았던 경령전 의례는 원구, 사직, 태묘와 같이 대사(大祀)로 행해졌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의 원묘(原廟)인 문소전은 『國朝五禮儀』 상에서 대·중·소사로 등재되지 못하고 속제(俗祭)로 올라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고려의 원묘가 태묘와 함께 중요한 국가 제사로 인정되고 있었던 데 비해 조선에서는 종묘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태묘 이외에 별도로 원묘나 진전을 두어 조상 숭배가 한층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조상 제례가 종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경령전에는 영사, 사, 부사, 판관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79) 『高麗史』 지(20) 禮(8) 嘉禮 「王太子加元服儀」, “告太廟別廟景靈殿並有司行事 如常告之儀.”
 80) 『高麗史』 지(15) 禮(3) 吉禮 景靈殿, “景靈殿正朝端午秋夕重九親奠儀·無時奏告如大廟奏告儀”; 『高麗史』 지(18) 예(6) 凶禮 「冊太廟儀」, “冊景靈殿儀放此.”
 81) 『高麗史』 지(15) 예(3) 제릉, “忠烈王元年五月 命宰臣洪祿適攝事于景靈殿 籩豆缺假內殿淨事色以祭.”

<표 2> 경령전의 관직 사례

	성명	관직명	전후 관직	전거
1	崔時允 (순종 1~인종 23년)	判官	景靈殿判官(蔭職, 예종 이전)	『고려묘지명집성』
2	李軾 (선종 6~의종 5년)	判官	尙書戶部書令史(현종 즉위년, 1094, 祖蔭)→景靈殿判官(예종 9년, 1114)	『고려묘지명집성』
3	朴景山 (문종 34~의종 12년)	判官	掌醴令同正(父蔭, 宣宗 7년, 1090)→景靈殿判官(예종 1년, 1106)→급제	『고려묘지명집성』
4	林景和 (숙종 7~의종 13년)	判官	軍器注簿同正(父蔭)→京山府通判(인종 5년, 1127)→景靈殿判官 雜織署令(정8) 都兵馬錄事 大府注簿(중7) 大府丞(중6) →權知監察御史(의종 2년, 1148)	『고려묘지명집성』
5	徐恭 (?~?)	判官	景靈殿判官(인종 10년, 1132)	『고려묘지명집성』 徐鈞묘지명; 『고려사』 열전(7) 서희
6	林景軾 (숙종 3~의종 15년)	判官	將仕郎 軍器主簿同正(父蔭)→禮州通判 →景靈殿判官 →梁州防禦副使 →試典廩署令 →... →試尙乘奉御(의종 8년, 1154)	『고려묘지명집성』
7	李文著 (예종 7~명종 10년)	判官	祖父蔭 →景靈殿判官(인종 16년, 1138) →樞密院堂後官 →洪州守(의종 6년, 1152)	『고려묘지명집성』
8	金闕甫 (인종 9~명종 11년, 1181),	判官	良醞丞同正(인종 23년, 1145, 門蔭)→臨陂縣尉(의종 9년, 1155)→內弓箭庫判官(의종 20년, 1166)→景靈殿判官(의종 21년)→試禮賓注簿(명종 5년, 1175)	『고려묘지명집성』
9	李公升 (숙종 4~명종 13년)	判官	□□丞同正(음서?)→刪定都監 景靈殿判官 京市署丞(정8) 兼式目都監錄事→金吾衛錄事→급제(인종대)→直翰林	『고려묘지명집성』; 『고려사』 열전
10	洪奎	使	崇祿大夫 守司徒 景靈殿使	『고려묘지명집성』
11	(?-충숙왕 3년)	領事	守司徒 領景靈宮事(충렬왕 24년, 1298)	『고려사절요』
12	廉梯臣 (충렬왕 30~우왕 8년)	領事	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壁上 三韓三重大匡 都僉議 左政丞 判軍簿司事上護軍 領景靈殿事(공민왕 3년, 1354)	『동문선』(119) 「曲城府院君贈諡忠敬公廉公神道碑」
13	鄭夢周 (충숙왕 복위 6~공양왕 4년)	領事	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判都監議使司 兵曹尙瑞寺事 領景靈殿事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經筵事(공양왕 2년, 1390)	『고려사』 열전30 정몽주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령전의 판관은 음직으로 받았거나 음직을 받은 이후의 관직이었다. 그리고 영사는 고려후기에야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 한편 문종 때에 태묘서의 령(令)은 종5품, 승(丞)은 정7품이었으며, 제릉서의 령은 종5품, 승은 종7품이었다.⁸²⁾ 이와 관련하여 녹봉을 비교해 본다면 경령전사는 령보다 낮은 승보다는 높았으며, 경령전부사와 판관은 승보다는 낮았다. 령, 승이 문무반록이었고, 경령전의 사, 부사, 판관이 권무관록이어서 체계는 달랐지만, 위계는 대체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경령전 관직은 태묘서와 제릉서 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재상이 경령전의 영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상이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고려전기는 태묘가 경령전보다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후기에 들어서서는 경령전의 위상이 태묘보다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왕실 조상 숭배 관련 관직의 녹봉(『고려사』 지(34) 식화(3) 녹봉)

녹봉	文武班祿	權務官祿	비고
60석	諸陵令, 太廟令		문종 30년
53석 5두	試諸陵令, 試太廟令		문종 30년
40석		景靈殿使	문종 30년
23석 5두	諸陵丞, 太廟丞		인종 개정시
16석 10두		景靈殿副使	문종 30년
10석 10두		景靈殿判官	문종 30년
8석		諸殿直, 諸陵直	문종 30년
7석		諸眞殿直	문종 30년

이처럼 고려후기에 들어 태묘보다 원묘인 경령전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몽골 침입 이후 태묘의 운영이 순조롭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원의 간섭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태묘를 맡은 태묘서(太廟署)는 문종 때에 정해진 관직이 영(令) 1명 종5품, 승(丞) 2명 정7품이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들어서 충선왕이 침원서로 고치고 전의시(典儀寺)에 속하게 하였고 영의 품계도 정7품으로 낮추었다. 그후에 영은 종7품으로, 승은 종8품으로 더욱 낮아졌

82) 『高麗史』 지(31) 백관(2) 침원서 및 제릉서.

다. 그러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태묘서라 하고 영은 정5품으로, 승은 중7품으로 회복되었으나 후에 침원서로, 다시 태묘서로 고치는 등 변동이 심했다.⁸³⁾ 이처럼 태묘서가 침원서로 개칭되고 관품이 낮아진 것은 태묘의 위상이 추락하였음을 말해준다. 원 간섭기에 들어 태묘의 위상이 낮아진 것은 왕권의 독자성이 위협받던 부마국으로서, 고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태조는 2년 3월에 3대의 선조를 추존하였고, 3대왕인 정종은 원년 정월에 태조릉인 현릉에서 제례를 행했다. 광종은 태조를 위해 봉은사를 세워 진전사원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종은 5묘제에 의한 태묘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태묘 제사, 능제사, 진전사원의 도량은 왕실 조상숭배의 제도로 자리 잡아 갔다. 이와 함께 고려는 경령전이라는 원묘를 설치, 운영했다.

경령전은 태조, 그리고 현 국왕의 직계 4대친의 진영을 모신 영전(影殿)이었다. 태묘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고 소목(昭穆)에 따른 왕위 계승의 위치(位次)를 중심으로 신주가 모셔졌다. 반면에 경령전은 태조를 제1실로 하여, 현 국왕의 혈통에 의한 직계 4대친의 진영을 모셨다. 이렇듯 경령전은 태묘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이중의 묘’이자 ‘별묘’, 즉 원묘였다.

경령전은 송의 경령궁을 수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경령전이 현종 때 어느 시기에 건립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대략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 현종 12년에 궁궐 중건과 함께 완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현종이 원묘인 경령전을 둔 것은 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태조 숭배의 필요성, 그리고 태조·안종·현종으로 이어지는 왕통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종의 즉위로 세차와 위차가 더욱 혼란해지자 원묘 운영을 통해 안종 봉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경령전 건설의 이유로 생각된다.

한편 경령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83) 『高麗史』 지(31) 백관(2) 寢園署.

『고려고도징』의 기록에 따라 경령전이 구정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내전 구역에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검토 결과 내전 구역 중에서도 내제 석원과 인접해 있었고, 특히 가장 가까운 건물은 십원전이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의 시굴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조사 보고에 의하면 경령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궁궐 북쪽인 내전 구역에서 발굴되었다.

경령전은 현 국왕의 직계 조상을 모신 곳임으로 오히려 태묘보다 더 중하게 취급되었다. 고려왕은 즉위, 나라와 왕실의 대소사를 경령전에 고했다. 경령전 제례의 절차는 태묘의 것을 따랐으며, 섭사의 경우 태묘와 마찬가지로 재상이 행하였다. 의례 절차를 보면 경령전은 태묘와 같은 위상을 가졌으며, 국가 제사에서 경령전은 태묘와 같이 대사로 변사(辨祀)되었다.

요컨대 고려는 태묘 이외에 별도로 원묘인 경령전을 두었고, 경령전은 세차(世次)로 4대전을 봉안하여 위치 중심의 태묘 보다 중시되었다. 그리고 태묘와 경령전을 모두 대사로 변사한 것은 조선의 경우와 비교된다. 조선은 종묘만을 대사로 두고, 이를 왕실 조상 숭배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원묘인 문소전은 속제로 변사했다. 이것은 두 왕조의 사상과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墓誌銘集成』;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覺國師文集』; 『東國李相國集』; 『牧隱詩藁』; 『破閑集』; 『太宗實錄』; 『世宗實錄』; 『高麗古都徵』; 『東文選』; 『宋史』.

高裕燮, 「高麗畫跡에 대하여」. 『韓國美術文化史論叢』. 서울: 통문관, 1974.

국립문화재연구소, 『開城 高麗宮城 시굴조사보고서』.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김종수, 「조선시대 魂殿과 原廟 제향악」. 『韓國學報』 66, 1992, 92~127쪽.

김창현, 『고려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서울: 신서원, 2002.

김철웅, 「고려시대 태묘와 원묘의 설치와 운영」. 『국사관논총』 106, 2005, 133~159쪽.

정구복, 「고려사 예지 역주(4): 경령전」. 『고려시대연구(X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鄭素英, 「조선초기 原廟의 불교적 성격과 置廢論 연구」.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 서울: 흥윤식교수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0.

趙善美, 「高麗時代の 眞殿制度」. 『韓國肖像畫研究』. 서울: 열화당, 1983.
 池斗煥,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4.
 한기문, 『高麗時代 王室願堂과 그 機能』. 『국사관논총』 77, 1996, 37~68쪽.
 한기문, 「고려시대 개경 봉은사의 창건과 태조진전」. 『한국사학보』 33, 2008, 205~246쪽.
 한형주, 「조선전기 文昭殿의 성립과 그 운영」. 『역사민속학』 24, 2007, 69~102쪽.
 허홍식, 「불교와 융합된 왕실의 조상숭배」. 『고려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6.
 山内弘一, 「北宋時代の神御殿と景靈宮」. 『東方學』 70집, 1985.
 올라프 라더(저)/김희상(역), 『사자(死者)와 권력』. 서울: 작가정신, 2004.

국문 요약

고려는 경령전이라는 원묘를 두었는데, 여기에는 태조와 현 국왕 직계 4대 친의 진영을 모셨다. 경령전은 현종대에 송의 경령궁을 본떠 만들었는데, 대체로 현종 12년에 궁궐 중건과 함께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종이 경령전을 둔 것은 태조 숭배를 통해 왕통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령전의 위치에 대해 『高麗古都徵』의 기록을 근거로 경령전이 궁정 가까이에 있었다거나 내전구역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토 결과 경령전은 내전 구역의 내제석원과 인접해 있었고, 특히 가장 가까운 건물은 십원전(十員殿)이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경령전은 현 국왕의 직계 조상을 모신 곳임으로 오히려 태묘보다 더 중하게 취급되었다. 고려왕은 즉위, 나라와 왕실의 대소사를 경령전에 고했다. 경령전 제례의 절차는 태묘의 것을 따랐으며, 섭사의 경우 태묘와 마찬가지로 재상이 행하였다. 의례 절차를 보면 경령전은 태묘와 같은 위상을 가졌으며, 태묘와 같이 대사로 행해졌다.

고려에서 태묘 이외에 별도로 원묘인 경령전을 두었고, 태묘와 경령전을 모두 대사(大祀)에 둔 것은 조선의 경우와 비교된다. 조선은 종묘만을 대사로 두고, 이를 왕실 조상 숭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 투고일 : 2009. 1. 11.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주제어(keyword) : 고려(Goryeo), 원묘(Wonmyo), 태묘(Taemyo), 경령전(Gyeonglyeong-jeon),
경령궁(Gyeonglyeong-jeon), 영전(The portrait hall).